



노안 시력교정

밝은광주안과 김재봉 원장

‘특수렌즈노안수술’ 한번으로 백내장·노안 동시 해결 장점

첨단 레이저로 각막 교정

‘레이저노안수술’ 각종

통증 없고 수술시간도 짧아

#.회사원 박모(47·광주 동구 산수동)씨는 요즘 들어 노안으로 인해 시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데다가 가까운 글씨도 잘 보이지 않아 고민이 크다. 안경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기가 불편할뿐더러 인상에 어울리지도 않아 착용하기도 싫다. 하지만 최근 직장 동료와 같은 문제로 고민하던 노안 시력교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과에 방문해 노안 수술을 할 예정이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66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3.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30년에는 그 비율이 25% 수준이 될 것으로 나타나는 등 우리나라가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증가하는 중·장년층 및 노년층의 경제 및 사회활동 기간이 길어지면서 돋보기를 쓰는 대신 활동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노안 시력교정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젊은 층에서 라식·라섹이 보편화됐다면 중년층에서는 노안 수술이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질병이 아닌 수정체의 노화에 따른 장애 현상 ‘노안’ =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노안을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혼탁한 시력 장애 증세로, 굴절작용의 문제로 가까운 사물에 초점을 맞추는 눈의 조절력이 저하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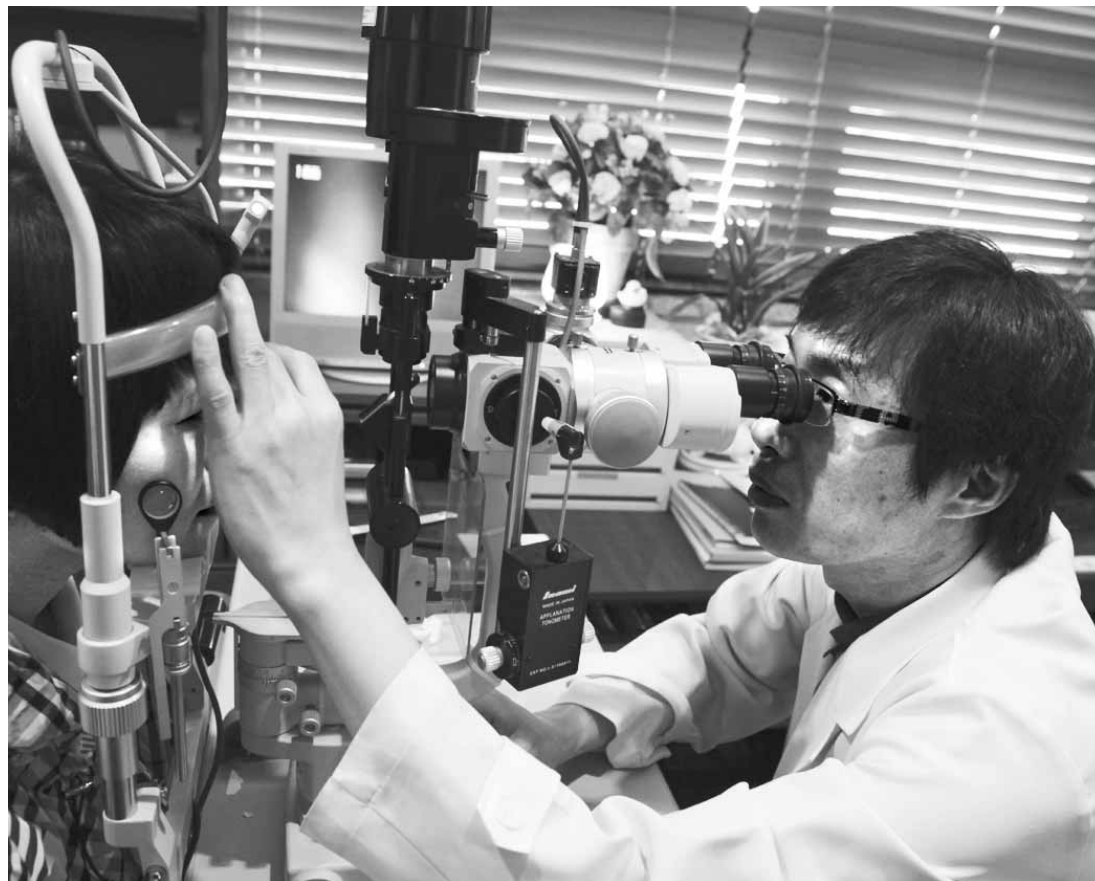
질병이 아닌 수정체의 노화에 따른 눈의 장애 현상으로, 주로 40~50세에 이르면 노안이 시작되며 가까이 있는 물체를 잘 볼 수 없어 책이나 신문을 볼 때 허리를 뒤로 젖혀 멀리 놓고 보게 되는데 이것이 노안이다.

노안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가까이 있는 게 잘 보이지 않는 것 외에도 쉽게 눈이 피로해지고 안통이나 두통이 쏘인다. 또 눈이 침침하고 흐릿해지거나, 가까운 물체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물체도 잘 보이지 않는 등 증상이 매우 다양하다.

◆‘돋보기’가 불편하면 ‘노안 수술’로 해결 = 노안의 가장 고전적인 해결 방법은 돋보기를 쓰는 것이다. 하지만 돋보기는 사용하기가 번거롭고 해마다 도수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나이 들어 보이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돋보기 없이 젊고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중년층들이 늘어나면서 수술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노안수술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각막을 레이저로 깎아서 교정하는 ‘레이저노안수술’과 노화된 수정



김재봉 밝은광주안과 원장이 작은 글씨가 흐리게 보이고, 눈에 잦은 피로감을 느끼는 40대를 진료하고 있다.

체를 제거하고 그 안에 노안교정용 특수렌즈를 삽입하는 ‘특수렌즈 노안수술’ 그리고 한 쪽 눈에 레이저로 각막절편을 만들고 그 안에 물방울 형태의 인레이를 삽입하는 ‘레인지노안수술’ 수술법이 있다.

‘레이저노안수술’은 최첨단 레이저로 각막을 교정하는 수술로 일반적인 라식 수술과 동일하다. 여러 가지 레이저수술 중 가장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수술방법은 커스텀뷰(Customvue) 노안라식이다. 수술원리는 물체를 주로 보는 한쪽 눈의 각막을 많이 깎아 먼 곳이 최대한 잘 보이도록 하고, 다른 눈은 가까운 곳이 잘 보이도록 적게 깎아 환자의 좌우 시력에 차이를 두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두눈이 두 안구의 인식 차이를 조정해 근거리와 원거리를 모두 선명하게 보도록 해 주는 원리다.

백내장 없는 젊은 환자 외에도 돋보기나 다초점 안경이 어지러운 사람, 백내장 수술 후 돋보기 쓰기를 꺼려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수술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교정술은 엑시머레이저를 이용하므로 통증이 거의 없고, 양 눈의 시술시간이 10분 정도로 짧으며, 수술 다음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특수렌즈 노안수술’은 백내장 수술과 같은 방식이지만 백내장과 노안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수술법이다. 백내장 수술은 시력이 나빠질 만큼 많이 진행

되면 혼탁한 수정체를 제거하고 그 안에 인공수정체를 넣는 방식이다. 하지만 기존의 인공수정체는 사물의 초점거리가 정해져 있으므로 대부분 수술 후 책을 보는 근거리 작업 때는 돋보기 착용이 필요했다.

하지만 인공수정체 대신 노안교정용 특수렌즈를 넣으면 원거리, 근거리를 동시에 볼 수 있어 수술 후에도 더 이상 돋보기가 필요 없고, 혼탁해진 수정체의 역할까지 대신 할 수 있다. 결국 노안과 백내장이 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시력교정 수술이다.

‘레인지노안수술’은 레이저를 이용해 각막에 절개플랩을 만들고, 그 안에 물방울 형태의 아주 미세한 인레이를 삽입하는 방식이다. 이 때 근시나 난시가 있는 경우 라식 수술을 통해 시력을 교정할 수 있다. 또한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경우라도 시력교정이 가능하며 기존 라식 수술을 받은 중·장년층의 경우에도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시술 후 불편함을 느끼면 간단히 제거할 수 있고, 노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백내장이나 녹내장 등 안구질환과 관련된 검사 및 수술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도 큰 장점이다. 양쪽 눈 중 한 쪽 눈에만 시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면서도, 노안을 교정하는 효과가 탁월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정리=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병원 윤택림 병원장 등 의료진이 지난달 광주U대회 기간 동안 주요 경기장 등을 돌며 메르스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메르스 종식·U대회 성공 개최 전인차 역할 전남대병원, 국내 최고 지역거점병원 재확인

전남대병원(병원장 윤택림)이 광주·전남지역 메르스 종식과 광주U대회 성공개최의 전인차 역할을 하면서 국내 최고수준의 지역거점병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전남대병원은 정부가 사실상 메르스 종식을 선언한 지난 28일 이후 현재까지 광주·전남을 ‘메르스 안전지역’으로 유지하는데 앞장서 왔다. 타 지역에서 감염되었다가 완치된 전남의 확진자 1명을 제외하고는 지역 내 감염이나 확진자 추가발생이 단 한건도 없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전남대병원이 신속한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전직원이 하나 된 마음으로 메르스 치료·예방에 매진하는 탄탄한 팀워크에서 비롯됐다. 또한 지역 의료계와 함께 메르스 예방활동을 선도해 나가는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도 한몫했다.

전남대병원은 무엇보다 메르스가 이 지역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대처했다. 국가 지정격리병동은 완벽한 음압시설을 갖춰 메르스 의심환자 격리·치료를 한 치의 소홀함이 없었다. 격리병동에는 지난 5월27일 첫 의심환자가 들어온 후 지난 7월7일까지 총 25명이 격리됐으며, 이중 1명의 확진환자가 완치돼 퇴원했

고, 나머지 환자는 모두 음성판정으로 격리 해제됐다.

광주U대회 개막을 앞두고 ‘개인위생 준수로 메르스 예방할 수 있다’는 슬로건으로 총 11차례의 메르스 예방홍보 캠페인을 펼치면서 메르스 안심 U대회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섰다.

지난 6월8일 병원 내 환자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시작해서 기아챔피언스필드(6월9일), 전남대학교 후문(11일), 유스퀘어(15일), 빙고을 노인건강타운(16일), 총장로 우체국(19일), KBS열린음악회 열린 조선대운동장(2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27일), 광주U대회 전야제 열린 전남대운동장(2월2일), 광주U대회 개막식 열린 광주월드컵경기장(3일), 광주U대회 폐막식 열린 광주월드컵경기장(14일) 등 시내 곳곳을 누비며 진행됐다.

윤택림 병원장은 “메르스 비상사태와 국제적 행사가 겹친 중대한 시점에서 지역거점병원으로서 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전직원과 함께 충실히 해내 가슴 뿌듯함을 느낀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국제적으로 전남대병원의 의료수준을 알리고 동시에 더욱 발전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8·15국민대합창제 참가 전남대병원과 전남대 의과대학·간호대학이 연합해 결성한 ‘WHITE CHORUS 백의 합창단’은 오는 15일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8·15 국민 대합창제에 참가한다. 광복 70주년 국민 대합창제는 ▲1부- 국민 대합창 ▲2부- 축하 공연으로 이승철, 이선희, GOD, EXO 등의 출연으로 광복 축하 음악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상무지구 사무실임대
(5층 100평 / 즉시입주가능)

상무지구 가장 **저렴한** 사무실
금용가도로 이면코너

- 평수 100평 (5층전체사용)
- 현 학원 운영중

**보 2천만
월 130만**

시설 완비
에어컨 2대 내부깔끔(시비약간있음)

급매 / 부동산종합 학원 매매

경매학원 매매
즉시운영가능
월수익 3,000만

010-6834-4800
010-6832-9700

2층상가건물매매
(나주 삼영동)

나주 혁신도시 10분!
나주역 7분!
영강고교
영강초교 정문앞

1층6칸 올임대, 2층 주택가능

월수익 200만 매매가 2억9천만

① 북구 우산동 안보화관 상임지킴실 7층상가건물 월수익 950만 매매가 1.5억	⑤ 상무지구 정연오씨 3층(30평)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500만
② 수원동 수원지구 4층중 3층 85평 월수익 180만 매매가 3억7천만	⑥ 동구 수기동제일오피스(45평) 월수익 60만 매매가 1억1천만
③ 상무지구 수림오씨 6층(13평) 월수익 33만 매매가 5천만	⑦ 광양 상아아파트 15평 (상가밀집지역) 매매가 4천만
④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월수익 32만 매매가 3천800만	⑧ 상무지구 중흥APT(33평) 매매가 2억2천500만

010-6834-4800
010-6832-9700

상업지 상가임대(1층)
(북구 우산동 구호전사거리)

1층 → **상업지역**
평수 → 70평
(분할가능 35평)
(유동인구 많음, 즉시입주)

**최고
상권**

커피숍 식당
PC방 적합

보증금, 월세 상담

010-6670-9800
010-7384-7800

신축 원룸 임대
(전대 정문2분, 전대후문2분)

**신축원룸
첫입주!**

풀옵션

에어컨,세탁기,침대,책상,TV 등
(모든 비품 무료 사용가능)

올 대리석 시공

7월 30일~8월 30일
입주자 한하여
선물 드립니다!

010-7384-7800
010-6670-9800

법정경매
(주)대신경매

수익성 상가 (근린 상가/구분상가)

- 1.서구 치평동(토44.77㎡, 건257.71㎡)감평가 6억1천~최저가 3억4천
- 2.광산구 방암동(토99㎡, 건23평)감평가 2억5천~최저가 1억1천
- 3.동구 금동동19평, 건149평)감평가 5억1천~최저가 1억2천
- 4.동구 금동동18평, 건134평)감평가 4억7천6백~최저가 1억4천
- 5.서구 치평동 4층중3층(토4.2㎡, 건18.6평)감평가 2억9천~최저가 1억1천7백

수익성상가 (근린주택)

- 1.동구 개림동(토59㎡, 건140평)감평가 4억2천~최저가 3억
- 2.북구 오치동(토54㎡, 건43평)감평가 1억9천~최저가 1억6백
- 3.북구 두암동(토42㎡, 건56평)감평가 1억5천~최저가 1억5천

수익성 상가 (근린 시설, 통건물)

- 1.북구 유암동(토66㎡, 건193평)감평가 7억2천~최저가 5억
- 2.광양시중동(토222㎡, 건991평)감평가 26억7천~최저가 18억7천
- 3.광산구 남산동(토258㎡, 건150평)감평가 4억8천~최저가 3억5천
- 4.서구 쌍촌동(170㎡, 건97평)감평가 4억~최저가 2억8천
- 5.북구 중흥동(120㎡, 530평)감평가 13억7천~최저가 7억7천
- 6.동구 수기동(토130㎡, 건320평)감평가 1억7천~최저가 7억5천

모텔/주유소

- 1.광산구 쌍암동(숙박시설)37㎡, 건680평)감평가 27억~최저가 19억
- 2.광산구 쌍암동(숙박시설)154㎡, 건419평)감평가 15억~최저가 10억5천
- 3.광산구 월계동(숙박시설)400㎡, 건604평)감평가 34억5천~24억2천
- 4.북구 중흥동(숙박시설)90㎡, 건373평)감평가 11억~4억9천

공장

- 1.전남 장성 북이면(토 2825㎡, 건614㎡) 감평가 41억 ~최저가 11억9천

062-382-5500
010-6832-9700